봉정사 괘불 속 영산회상 法悅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4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시돼
화승 도문 그린 마지막 작품
예술 역량 집대성된 대표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 명이 도문 스님의 마지막 불화인 '안동 영산회 괘불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불기2570년(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을 소개하는 전시인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 안동 봉정사 괘불'을 4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설전시실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괘불은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특별한 날, 야외의식에서 거는 대형불화로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괘불전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전승되는 한국 불교 특유 대형불화인 괘불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이어져왔으며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시되는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

'봉정사 괘불'은 1710년(숙종 36) 제작되었으며 높이 821.6cm, 폭 620.1cm에 달하는 대작이다. 비단 16폭을 옆으로 이어 만든 화폭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 영취산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펼친 영산회상(靈山會上) 장면이 담다. 커다란 화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열 명의 제자를 좌우 대칭으로 비중 있게 구성해 영산회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괘불을 제작한 18세기 경북 화승 집단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괘불 제작에는 도문(道文)·설잠(雪岑)·승순(勝淳)·계순(戒淳)·해영(海英)·종열(宗悅)·성은(聖誾) 스님 등 7명의 화승이 참여했다.

특히 도문 스님을 비롯한 일부는 의성 고운사 '아미타회상도'(1701), 보물 예천 용문사 '천불도'와 '팔상도'(1709)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한 화승 집단의 존재를 보여준다.

'봉정사 괘불'은 현재까지 확인된 도문 스님의 마지막 불화 작품으로 스님의 화풍과 예술적 역량이 집약된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화면 하단의 화기에는 '봉정사 괘불'의 조성 과정과 참여 인물, 후원 양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총 166명이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여성 후원자인 '명월사당 묘정(明月舍堂 妙淨)'의 존재가 눈길을 끈다. 한양에 거주한 묘정의 불사 후원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화승 도문 일행의 활동과도 맞물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봉정사 괘불'은 특정 화승 집단과 이들을 후원하는 시주 계층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불교사와 불교미술사 연구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후기 화승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태종, 예술·사진 공모전 잇달아

11회 천태예술대전 9월 16~17일 접수
8회 천태사진공모전 8월 10~21일 공모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4월 8일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과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지원 분야는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공예 △민화 4개 부문이며, 1인 3점 이하 출품이 가능하다.

전통·현대불화와 민화 작품의 규격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높이 210cm 이하)이어야 하며,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을 출품해야 한다. 민화 중 병풍은 12폭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6~1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서울 우면동 관문사 2층이다. 접수 시 작품과 출품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 요강과 출품원서는 7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며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국가유산청장) 1명에는 상금 700만원, 우수상 4명에는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4명에는 상금 각 50만원, 특선 약간 명에는 소정의 상품, 입선 약간 명에는 상장, 특별상에는 기념패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11월 25~30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시상식은 전시 기간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은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자연 풍경, 사찰, 불교 정신을 주제로 진행되며 천태종 관련 사진을 우대한다. 작품 규격은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로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해야 한다.

출품방법은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cheontaecmb2@kakao.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8월 10~21일이다.

심사는 9월에 진행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02-723-1559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언어와 논리를 넘어선 세계

㊲ 직지인심(直指人心)

直 指 人 心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직지인심(直指人心).

선종의 이 두 가르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숲에 갇힌 오늘의 우리에게 매서운 죽비처럼 울린다. 당나라 보리달마의 가르침을 정리한 〈소실육문(少室六門)〉과 육조 혜능의 〈단경(壇經)〉에서 거듭 강조된 이 정신은,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자기 마음을 곧장 대면하라는 엄중한 요청이다.

우리는 정보의 풍요 속에 살지만, 정작 '자기'는 빈곤하다. 손가락 하나로 세계의 지식을 불러오고, AI는 취향마저 예측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성적 추론이나 정교한 개념, 과학적 논증으로 도달할 수 없다. 지도는 지형이 아니며, 아무리 정밀한 수치도 한 인간의 고유한 영혼을 담아낼 수 없다.

"강물에 달이 비치면 물이 달을 품은 듯하나, 물이 흐른다고 달까지 흐르지는 않는다."

이성적 사유와 학문 체계는 진리에 이르는 방편(方便)에 불과하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지식에 매달려 그 안의 생명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불립문자'는 지식의 과잉이 오히려 시야를 가리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전하는 '교외별전(教外別傳)' 또한 같은 뜻을 가리킨다. 진리는 경전의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살아 있는 체험 속에 있다. 우리는 수많은 '글자'에 파묻혀 자기 마음의 미세한 울림을 듣지 못한다. 분석과 분류에는 능숙하지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 직관은 점점 퇴화한다.

결국 핵심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자기 마음을 곧바로 통찰할 때 공성(空性)과 불성(佛性)은 드러난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 과학적 인과율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벗고, 가공되지 않은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에 기쁘고 무엇에 아픈지, 마음의 근원을 돌아볼 때 비로소 지식은 살아 있는 앎이 된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오천 권의 문자가 있어야 그것이 넘쳐 글과 그림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문자 또한 '나'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어 지혜로 변해야 한다. 견성(見性)하여 성불(成佛)한다는 말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과 분석의 과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의 실상을 직면하는 일이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타인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로 남는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 한암 스님(186~1951)의 이 말이 지금 더욱 깊고 맑게 울린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방송 다큐 휴스턴 영화제 2관왕

다큐 · 영상 제작 2개 부문서
차, 와인 통해 종교철학 조명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인 '휴스턴 영화제'에서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의 다큐멘터리가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BBS는 "특집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盞)-커피, 차 그리고 와인'이 세계적 권위의 영상 시상식인 제5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WorldFest-Houston)에서 '레미상(Remi Award)'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뉴욕 영화제와 함께 북미 3대 영상 페스티벌로 손꼽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50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시상식에서 BBS의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잔'은 △다큐멘터리 부문과 △영화 및 영상 제작 부문을 동시에 석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최종 수상 등급은 4월 말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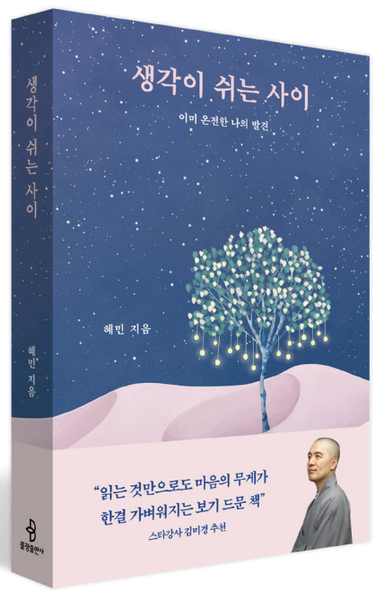
수상작인 '종교를 품은 잔'은 불교의 '차(茶)', 가톨릭의 '와인', 이슬람의 '커피'가 각 종교의 의례와 수행을 지탱해온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작품을 기획·연출한 김정은PD는 해남 대흥사 일지암의 초의 선사 다례재부터 튀르키예의 모스크와 커피하우스, 이탈리아 수도원의 미사 현장까지 세계 각지의 성지를 누비며, 한 잔의 음료 속에 담긴 깊은 종교적 철학을 수려한 영상미로 담아냈다.

신중일 기자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

나를 괴롭히는 '내 해석'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
이미 고요하고 온전한 자신을 지금 여기서 만나다!





생각이 쉬는 사이

혜민 지음 | 336쪽 | 19,800원

이 책에 대한 찬사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진정한 치유"
- 김미경 MKTV 대표(『김미경의 딥마인드』 저자)

"나라는 존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성찰"
- 곽정은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교수(『어웨어니스』 저자)

이 책의 인세는 스님의 뜻에 따라 국내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음식 나눔에 전액 기부됩니다.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애써 붙잡고 있던 생각이
잠깐 멈추는 순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조용한 자리가 드러납니다."

- 혜민 두 손 모아

ⓒ조세현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